

독서지도에 대한 부모의 주관성 연구*

A Study on the Subjectivity Structure of Parents' Book-Reading Guidances

정 현 욱 (Jung, Hyun Wook)**

◁ 목 차 ▷

1. 서론	4. 연구결과
2. 기존문헌 검토	4.1 Q 분석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4.2 유형별 특성
3.1 연구문제	5. 결론 및 제언
3.2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펼치는 독서지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폈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2015년 10월 1일에서 2015년 10월 9까지 조사를 했다. 연구결과 3개의 독서지도에 관한 주관성 구조를 발견했다. 첫째, 제1유형은 자녀와의 '공감', '참여', '토론'에 주안점을 두면서 자녀의 독서지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본 연구자는 이 유형을 "상호작용형"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력, 창조력, 문제해결력을 높이기를 기대했다. 전체 응답자의 약 31% 포함되었으며, 주로 '소설'이나 '창작물' 등을 독서지도 장르로 인식했다. 둘째, 제2유형은 자녀의 독서활동에 있어서 제1유형 못지않은 관심을 갖지만 독서지도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들은 '책 사주기', '독서 환경 만들기' 등에 지도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이 집단의 독서지도는 자녀의 독서습관형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약 54%에 해당하였으며 독서지도 장르는 주로 역사물, 위인물 등이었다. 셋째, 제3유형은 규제적이고 통제적인 독서지도 방식을 보유했다. 이들의 독서지도는 독서목록 작성, 도서관 이용방법, 시간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전체의 약 15%에 해당했으며, 이들의 독서지도는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이루어졌다.

要語: 주관성, 독서지도, 도서목록작성, Q방법론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언론학부 교수(jungyun@wku.ac.kr)

접수일: 201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5년 12월 3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21일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parents' subjectivity structure shown with regard to their book-reading guidance. By depending upon Q methodology, it collected data from October 1 through October 9, 2015. The analyses showed 3 types of subjective structures. The first type of parents conducted active book-reading guidances while focusing on "empathy",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This study named it as "the interaction type". Parents of this type expected their children to learn thoughts, creativities, problem-solving abilities in the course of their interactions. 31% of total respondents belonged to this type, and they used to recommend such genre books as 'fictions' and 'creative works' to their children. The second type of parents were passive with regard to their book-reading guidance even though they were concerned with kids' reading activities as much as the first type. Parents of this type tended to focus on 'purchasing books', 'building reading environment', and others. 54% of total respondents belonged to this type, and they used to recommend such genre books as 'histories' and 'hero's memoirs' to their children. The third type of parents were very restrictive. Sometimes they monitored a wide spectrum of reading activities. They kept their eyes on such activities as 'book-list keeping', 'library using method', 'time management', and others. 15% of total respondents belonged to this type. What made this type different from the other 2 types was that they did not recommend a certain genre of books.

Key words: subjectivity, book-reading guidance, book-list keeping,
Q methodology

1. 서론

최근 학생들의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무적인 현상이 여러 조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2013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연평균 독서율은 96.0%(2014)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11년(83.8%)보다 12.2%나 높아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일 년 동안 읽는 책의 권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학생들은 2014년 한 해 동안 32.3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이들은 2011년(24.3권)보다 8권이나 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¹⁾ 이러한 현상은 부모의 활발한 독서지도- 예를 들어, 자녀에게 부모가 책 읽어주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책 사주기 등-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이 내리는 진단이다.

독서는 “사고하는 것” 혹은 “텍스트의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그것을 기억 속에 집어넣는 일”, “시각적 수용과 사고간의 인지적 과정”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²⁾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독서는 작가와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하는 능동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³⁾ 즉, 독서는 아주 의도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행위이다.

독서는 이처럼 작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책의 선택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의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면, 책을 읽기 전에 항상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선택하고, 선택한 책을 시간을 투자하여 읽으며, 읽고 난 후에는 ‘다시 읽고 싶다’ 혹은 ‘주인공이 맘에 든다’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 반응은 다음에 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써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⁴⁾ 그러나 어린 학생들의 독서행위는 일정한 독서 패턴이 설정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지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⁵⁾ 즉, 자녀의 독서습관과 태도는 부모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1) 백원근 외,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3).

2) 이정춘, 이종국, 『독서와 출판문화론』 (서울: 범우사, 1995).

3) 이정춘, 이종국(1995).

4) 김현아, “아동문학 읽기의 새로운 현상과 접근,” 『독서연구』 제2호(1997), 135-180.

5) 김현아(1997).

는 효율적인 독서지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독서지도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⁶⁾

독서는 학생들의 심리적 자산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독서는 학생들의 가치관 확립과 자아완성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⁷⁾ 자아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⁸⁾ 즉, 학생들은 독서를 통해서 창조적 상상력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판력을 배양하여 현실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된다. 독서는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교육적 기능’, ‘오락적 기능’(긴장해소와 휴식추구), ‘사회적 기능’(예, 외로움과 사회적 고독의 극복) 등을 수행한다.⁹⁾ 독서가 담당하는 이러한 기능과 관련하여 책은 신문, TV에 비해서 훨씬 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책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자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¹⁰⁾

부모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독서지도는 특히 가치관 혼란과 정서적 불안감을 갖는 자녀에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복희(2003)에 의하면, 적절한 독서지도는 자녀의 가치관 확립과 안정된 생활을 구축하는데 특히 유용하다고 한다.¹¹⁾ 예를 들면, 문학 관련 독서지도가 자녀에게 작품의 인물과의 동일시, 대리만족, 자기욕구의 발산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박경숙은 부모의 독서지도는 그 목표를 정보획득능력, 작품 이해와 감상의 능력, 비판적 분석과 평가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확보 등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¹²⁾

6) 김정해, “부모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독서태도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5).

7) 우한용, “문학의 위기와 인문정신의 미래,” 『독서연구』 제2호(1997), 7-36.

8) 김복희,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과정중심의 독서지도의 방법과 실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3).

9) 이정춘, 이종국(1995).

10) Fiske J.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강태완·김선남 역,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선북스, 2001), 52.

11) 김복희(2003).

12) 박경숙, “읽기 영역으로서의 독서교육방법연구-중학교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3).

독서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분야 연구자들은 부모의 독서지도의 현황과 그 영향을 밝히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 예를 들면, 채미숙은 자료 분석을 통해 독서촉진자로서 부모의 독서지도는 자녀의 효능감, 읽기태도와 능력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¹³⁾ 또 정대현·신원애는 부모의 독서지도 활동을 대부분 이야기 나누기에 할애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책읽어주기, 독서환경제공하기, 독서관련활동제공하기, 이야기나누기 등도 독서지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 한편, 이경란은 독서에 관한 부모의 관심도와 영향력을 연구했는데, 공공도서관에서 ‘학부모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수강했던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 보다 자녀들에게 더 활발하게 독서지도를 한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¹⁵⁾ 또한, 같은 연구에서 이경란은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부모가 그렇지 않은 학부모보다 가정에서 더 좋은 독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자녀의 독서습관 형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¹⁶⁾ 이상과 같이 연구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독서지도가 자녀의 독서태도와 인식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부모의 독서태도가 자녀의 독서태도를 결정한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들은 부모의 독서지도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은 독서지도의 영향력 규명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부모의 독서지도 유형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모의 독서지도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3) 채미숙, “자녀의 독서 촉진자로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14) 정대현, 신원애, “유아기 부모의 독서지도 인식 및 실태,”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11), 137-163.

15) 이경란, “학부모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아동의 독서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1).

16) 이경란(2001).

2. 기존문헌 검토

부모의 독서지도 유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독서지도 유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연구의 단초를 인접 분야,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미디어 분야는 오랜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시청지도가 자녀들의 미디어에 대한 안목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이다.¹⁷⁾

시청지도는 텔레비전이 자녀들에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물을 무차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TV 시청지도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청 당사자인 자녀가 비판적인 의식을 확보하는 것을 돕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러다 보니 시청지도는 TV의 부정적인 측면을 걸러낼 수 있는 형태 즉, 제한적 지도(restrictive guidance), 설명적 지도(instructive guidance), 공동시청(coviewing) 등으로 이루어진다.¹⁸⁾

첫째, 제한적 지도방식은 부모가 어린이의 시청을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에는 텔레비전의 시청 시간 및 시청 프로그램 등을 제한하는 특정한 시청규칙을 만들어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이 방식은 텔레비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설명적 지도방식은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스스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달성하는 방식이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텔레비전 등장인물이나 내용에 대해서 좋다거나 혹은 나쁘다는 식으로 설명해주면서 자녀의 내용물 혹은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절하게 된다.

셋째, 공동시청 지도 방식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같이 시청하면서 의견을 교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의 의미는 부모가 자녀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이에

17) 이은미, “부모의 시청지도가 초중생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행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6권 3호(2002), 397-421. ; 안정임, “한국에서의 TV시청중재 유형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7권 6호(2003), 332-353.

18) 이은미(2002) ; 안정임(2003).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는 데 있다. 이런 공동시청 지도 방식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텔레비전 시청이라는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안정임은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부모는 제한적 시청지도나 설명적 시청지도를 활용하는 반면,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부모는 공동시청지도를 활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공동시청 지도방식은 부모가 자녀에게 방임태도를 조장할 가능성도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⁹⁾ 임남균도 자녀의 시청지도가 자녀의 능동적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능력을 길러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²⁰⁾

한편 부모의 자녀독서지도는 통제목적보다는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독서지도는 첫째,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수단인 된다. 둘째, 독서의 습관화를 형성시켜서 평생교육의 바탕을 제공해주며 사회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독서를 통해 경험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능력을 길러준다.²¹⁾ 독서지도 목적은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를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²²⁾

이처럼 독서지도는 일차적으로는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하는 일,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나아가 창의적, 비판적인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독서지도의 내용은 정보의 획득 능력, 정보의 이해능력, 비판적 분석 및 평가능력, 사회생활에의 적용 능력 등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부모에 의해서 수행되는 독서지도가 학생들의 독서율 향상과 독

19) 안정임(2003).

20) 임남균, “부모의 제한적 시청지도가 자녀의 매체 시청조절능력 및 시청행태에 미치는 영향: 텔레비전과 인터넷매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0).

21) 윤재옥, “통합적 독서지도방법연구-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2014).

22) 박경숙(2003).

서태도 형성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평했다. 예를 들면, 송현서는 독서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독서활동을 하는 어머니가 자녀들의 독서지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 역시 매우 높음을 규명했다. 즉,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어머니 독서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응답자들의 독서지도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수행한 독서지도보다 자녀의 독서습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즉, 어머니독서회 회원자녀들이 더 많은 독서시간을 가졌으며, 또 그들이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서 더 많은 자료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머니회 활동을 하는 응답자들의 자녀가 부모와 더 빈번하게 독서 관련 대화를 수행했다.²³⁾ 이 연구는 어머니의 독서에 관한 높은 관심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독서지도가 자녀의 독서활동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경란의 연구도 이와 유사했다. 즉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에 비해서 더 활발한 독서활동을 했으며, 또 그들이 효율적인 독서 지도 방법을 활용하여 자녀를 잘 지도하고 있음이 나타났다.²⁴⁾ 김숙영도 부모와 자녀와의 독서토론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독서토론 관련 부모교육을 수강했던 부모들이 그렇지 않았던 부모들보다 더 효율적인 자녀의 독서지도를 수행했으며 또 양육스트레스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²⁵⁾ 송미아는 학부모의 독서생활이 자녀의 독서행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도행태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가정에서 독서활동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족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하루 30분 책읽기 운동’ 등 독서활동에 부모를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²⁶⁾ 이은영도 자녀의 독서습관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도서관 이용시간,

23) 송현서, “어머니의 독서활동이 자녀 독서습관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8).

24) 이경란(2001).

25) 김숙영, “독서토론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26) 송미아, “소그룹과 가정에서의 독서지도를 통한 독서습관의 형성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6).

대출권수, 독서흥미와 몰입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녀의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²⁷⁾

최근 들어,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독서지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학부모 4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73.3%가 ‘자녀 독서 활동을 관여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 부모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이가 난이도나 수준에 적합한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다”와 “독서 후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물어 본다”가 각각 36.2%, 35.1%로 나타났다. “독서 노트나 일기 등 독서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는 32.0%, “아이의 정해진 시간에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4.0%, “아이의 목표 독서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17.5%였다. ‘부모의 관여가 자녀의 독서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61.3%가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바 있다.²⁸⁾

이상과 같이 기존연구들은 부모의 독서지도 중요성 및 효과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할애했지만 독서지도 유형을 밝히는 데는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독서지도 유형의 구조를 밝히고자 했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모의 독서지도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했다. 전반적으로 Q방법론은 수용자의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27) 이은영, “권장도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학생의 학교도서관 이용 및 독서습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28) <<http://kids.hankooki.com/lpage/edu/201510/kd20151012161801118750.htm>>.

객관적인 접근이자 주관적인 접근으로 평가받는다.²⁹⁾ Q방법론은 수용자를 자발적인 주관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하는 접근으로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서 주관성을 파악하는가 하면, 통계를 통한 결과에 의하여 체계적인 해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연구방법의 특성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했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자녀의 독서지도 유형은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3.2 연구방법

3.2.1 Q 표본

Q 표본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총체적인 느낌이나 의견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권 안에서 메시지 혹은 사건에 관해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느낌이나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concourse)로 이해할 수 있다. 김홍규·오세정은 “Q 연구를 위해서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로 규정했다.³⁰⁾

본 연구는 시청지도에 입각하여³¹⁾ 독서지도를 ‘무관심’, ‘평가적 지도’, ‘제한적 지도’, ‘참여적 지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100여 개의 Q 표본을 구성했다. 각 항목에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한 총 24개의 항목을 선택해 이를 Q 표본으로 활용했다(<표 1> 참조).

29) 김홍규,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8). ; 이오현. “수용자의 뉴스해독에 관한 일 연구 - Q 방법론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3). ; 김선남, 정현욱, “출판종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9집(2014. 9).

30) 김홍규, 오세정, “축제의 의미,” 『주관성연구』 제18호(2009. 6), 143.

31) 이은미(2002) ; 안정임(2003).

<표 1> Q 표본의 특성

번호	Q 표본
1	자녀가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른다.
2	자녀에게 독서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
3	자녀의 독서습관에 무관심하다.
4	자녀의 독서습관을 존중한다.
5	독서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
6	자녀의 독서습관을 모르는 편이다.
7	텔레비전을 없앤다.
8	자녀에게 좋은 책을 사준다.
9	자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책을 둔다.
10	자녀가 읽어야할 도서목록을 만들어준 적이 있다.
11	자녀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을 알려준다.
12	자녀의 잘못된 독서습관을 바로잡아준다.
13	자녀가 책을 더 많이 읽도록 도와준다.
14	자녀의 독서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15	우수도서를 추천해준다.
16	독후감 쓰기를 바꾼다.
17	책 내용을 자녀와 논의한 적이 있다.
18	책의 어휘를 자녀에게 설명해준 적이 있다.
19	자녀와 같이 책을 읽는다.
20	자녀와 같이 책 내용을 토론한다.
21	독서후 느낀 점을 자녀와 공유한다.
22	자녀와 독서일정을 같이 짠다.
23	자녀와 자주 책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24	자녀의 독서일지를 꼼꼼히 읽는다.

3.2.2 P 표본

Q 방법론은 개인간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s)가 아니라 개인내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룬다. 이에 따라 P 샘플 수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한다.³²⁾ 본 연구는 Q 방법론의 소표본 기준에 입각하여

32) 김홍규, “P 표본의 선정과 Q 소팅,” 『주관성연구: Q방법론 및 이론』 제15호(2007), 7.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P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유형	ID	성	나이	자녀수	지도 장르	독서지도시간 (분)	독서시간 (분)	인자가중치
제1유형 (N=8)	1	여	43	3	소설	300	120	.9714
	2	여	37	2	창작동화	180	180-240	2.0415
	11	여	38	2	사회과학	80	-	2.9808
	12	여	46	1	창작	500	60	.6025
	13	여	36	1	-	1000	300	1.2519
	19	여	40	1	소설	30	60	1.4590
	22	여	41	3	위인전기	30	120	.4459
	24	여	41	1	-	420	300	1.8160
제2유형 (N=14)	4	여	43	2	역사물	-	-	1.4448
	5	여	39	3	-	30	60	1.1899
	7	여	39	2	역사물	150	60	.6687
	8	여	38	1	역사물	60	80	1.4589
	9	여	37	2	문학	180	180	.9514
	10	여	42	2	문화예술	200	60	.9103
	15	여	38	2	위인물	120	60	1.4520
	16	여	38	1	위인·과학	300	200	1.3527
	17	여	42	1	동화	60	180	.9850
	18	여	44	1	-	180	60	.7961
	20	여	50	2	만화	0	60	.1797
	21	여	43	2	-	0	30	1.1268
	23	여	45	2	유해도서	120-180	120	.9847
25	여	50	1	문학	5	-	1.2111	
제3유형 (N=4)	3	여	37	2	다양한 분야	420	240	.8408
	6	여	41	2	세계사	30	10	1.2560
	14	여	36	2	다양한 분야	100	30	.7034
	26	여	47	2	문학	300	300	.6695

4. 연구결과

4.1 Q 분석

본 연구는 독서지도가 몇개 유형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총 3개의 유형을 도출했다. 각 유형의 아이겐 값이 <표 3>에 나타나 있다. 각각 12.8907, 41.9389, 1.3483이다. 변량은 0.4958, 0.0746, 0.0519이다. 누적변량은 0.6222로 나타나 3개 유형이 전체 변량의 약 62%를 설명하고 있다.

<표 3>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아이겐 값	12.8907	1.9389	1.3483
변량	.4958	.0746	.0519
누적변량	.4958	.5704	.6222

유형간 유사성 정도를 의미하는 상관관계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제1유형과 제2유형간의 상관계수는 .676, 제1유형과 제3유형은 .610, 제2유형과 제3유형은 .754로 나타났다.

<표 4> 유형별 상관관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1유형	1.000		
제2유형	.676	1.000	
제3유형	.610	.754	1.000

4.2 유형별 특성

4.2.1 제1유형: 상호작용형

제1유형은 자녀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의 독서활동에 참여하는 독서지도 패턴을 보였다. 이들의 독서지도는 공유, 토론, 공감 등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의 독서과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이 유형은 시청지도 유형 가운데 ‘공동시청’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³³⁾

제1유형의 특성은 이들이 동의했던 항목들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들이 가장 동의했던 항목은 ‘독서 후 느낀 점을 자녀와 공유한다’(z-score=1.63)였다. ‘자녀와 같이 책을 읽는다’(z-score=1.40), ‘자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책을 둔다’(z-score=1.35), ‘자녀와 자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z-score=1.29) 등의 항목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독서를 하는가 하면 책의 내용과 등장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자녀들과의 공감을 추구했다. 이들의 독서지도는 상호이해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접근이다. 이같이 자녀와의 공감, 공유, 상호이해 등을 추구하는 독서지도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저는 평소에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자녀와 책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공감을 얻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자녀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느낌을 비교합니다”(#1)

“독서가 습관이 되려면 먼저 책과 친숙해져야 한다. 어떻게든 자녀와 책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2)

“책을 읽고 느낌을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갖게되면 자녀가 책에 관한 흥미를 더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11)

33) 이은미(2002) ; 안정임(2003).

“자녀가 어휘를 모른 상태에서 독서를 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의 어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시간을 통해서 어른의 시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게 된다”(#13)

“저는 아이와 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함으로써 공감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24)

제1유형은 자녀의 독서활동에 직접 관여하면서 자녀가 읽어야 하는 책을 직접 선정하고 책 내용과 느낀 점 등에 대해서 자녀와 대화를 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제1유형의 ‘독서지도’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올바른 독서습관과 시기와 수준에 맞는 책을 읽게 도와준다”(#1)

“바른 독서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지도한다”(#2)

“자녀가 책을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11)

“불량도서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12)

“나이에 맞는 독서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한다”(#13)

“독서의 자세를 교정하는 계기다”(#22)

“언어구사력이 향상되고 생각을 깊게 한다”(#24)

한편 제1유형이 동의하지 않았던 진술문은 ‘자녀가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른다’(z-score=-1.95), ‘자녀의 독서습관에 무관심하다’(z-score=-1.85), ‘독서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z-score=-1.36), ‘자녀의 독서습관을 모르는 편이다’(z-score=-1.29), ‘자녀에게 독서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z-score=-1.01) 등이다. 제1유형은 자녀의 독서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적극적으로 독서지도에 임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이들의 독서지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녀의 사고력, 창조력,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자는 제1유형을 “상호작용형”이라고 명명했다. 이 유형은 응답자의 30.8%가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독서지도 장르는 주로 소설이나 창작물 등이었다.

<표 5> 제1유형: 상호작용형

번호	Q 표본	표준점수
21	독서 후 느낀 점을 자녀와 공유한다.	1.63
19	자녀와 같이 책을 읽는다.	1.40
9	자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책을 둔다.	1.35
23	자녀와 자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1.29
2	자녀에게 독서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	-1.01
6	자녀의 독서습관을 모르는 편이다.	-1.29
5	독서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	-1.36
3	자녀의 독서습관에 무관심하다.	-1.85
1	자녀가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른다.	-1.96

4.2.2 제2유형: 소극적 지원형

제2유형은 자녀의 독서환경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독서지도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의 독서지도는 ‘자녀에게 책을 사준다거나’ 혹은 ‘자녀가 책을 쉽게 읽을 수 있거나’, ‘더 많은 책을 읽게 하는’ 이른바 독서환경을 마련하는데 주목했다.

이들의 소극적 독서지도는 이들이 동의했던 항목에서 확인된다. 즉 이들이 가장 동의한 항목은 ‘자녀의 독서습관을 존중한다’(z-score=1.81)였다(<표 6> 참조). <표 6>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들이 동의한 항목들은 ‘자녀에게 좋은 책을 사준다’(z-score=1.52), ‘자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책을 둔다’(z-score=1.41), ‘자녀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을 알려준다’(z-score=1.24), ‘자녀와 같이 책을 읽는다’(z-score=1.08), ‘자녀가 책을 더 많이 읽도록 도와준다’(z-score=1.00) 등이었다.

이들의 자녀독서 지도가 제한적이고 소극적이며, 또 독서지도의 목적이 독서환경 조성성에 있다는 점은 이들이 강조하는 독서지도의 목적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무슨 책을 읽는지 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5)

“부족한 부분을 잡아주는 정도이다”(#8)

“유해성에 대한 분별력을 기르는 과정이다”(#10)

또한 이들은 독서지도의 목적을 ‘자녀의 책읽기 습관 형성’에 두었다.

“자녀지도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다”(#16여)

“습관형성이 매우 중요하다”(#17)

이 유형의 소극적 독서지도 방식은 다음의 내용에서 재확인된다.

“특별히 지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20)

“방향과 메시지만 제시해주면 된다”(#21)

제2유형은 제1유형에 비하여 소극적인 형태의 독서지도를 구사했지만 자녀의 독서활동에 대한 관심은 유사했다. 이런 특성은 이들이 반대했던 다음의 진술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자녀가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른다’(z-score=-2.03), ‘자녀에게 독서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z-score=-1.38), ‘자녀의 독서습관에 무관심하다’(z-score=-1.23), ‘자녀의 독서습관을 모르는 편이다’(z-score=-1.21), ‘독서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z-score=-1.16).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의 독서지도를 보유한 이들을 본 연구자는 “소극적 지원형”이라고 명명했다. 본 연구에서 이런 유형은 응답자의 상당수(53.8%)가 해당했으며 이들은 주로 역사물이나 위인전기물 등 분야에서 독서지도를 시행했다. 즉 이 유형은 보통 어머니들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제2유형: 소극적 지원형

번호	Q 표본	표준점수
4	자녀의 독서습관을 존중한다.	1.81
8	자녀에게 좋은 책을 사준다.	1.52
9	자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책을 둔다.	1.41
11	자녀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을 알려준다.	1.24
19	자녀와 같이 책을 읽는다.	1.08
13	자녀가 책을 더 많이 읽도록 도와준다.	1.00
5	독서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	-1.16
6	자녀의 독서습관을 모르는 편이다.	-1.21
3	자녀의 독서습관에 무관심하다.	-1.23
2	자녀에게 독서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	-1.38
1	자녀가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른다.	-2.03

4.2.3 제3유형: 통제형

제3유형은 자녀에 대한 구속적이고 통제적인 독서지도 형태를 보였다. 이들의 독서지도는 독서목록작성, 도서관이용방법 제공 등이었다. 이런 독서지도 방식은 ‘제한적·구속적인 시청지도방법’과 유사한 형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제3유형의 독서지도 방식은 이들이 동의한 항목에서 더 이해할 수 있다. <표 7>에 나타났듯이, 이들이 동의한 항목은 ‘자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책을 둔다’(z-score=1.67)이었다. ‘자녀가 읽어야 할 독서목록을 만들어준 적이 있다’(z-score=1.47), ‘자녀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을 알려준다’(z-score=1.34), ‘자녀와 같이 책을 읽는다’(z-score=1.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독서지도가 통제적이고 구속적이라는 점은 다음의 내용으로 재확인할 수 있다.

“독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자녀가 이를 꼭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서는 인생의 멘토다”(#6)

“부모가 독서습관을 보여주어서 자녀가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14)

“어릴 때부터 책을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 같다”(#26)

한편 이들은 다음의 문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즉 ‘자녀가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른다’(z-score=-1.75), ‘자녀의 독서습관을 모르는 편이다’(z-score=-1.69), ‘자녀의 독서습관에 무관심하다’(z-score=-1.63), ‘독서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z-score=-1.48). ‘자녀에게 독서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z-score=-1.17) 등이 포함된다. 제3유형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독서활동에 대한 관심을 보유했다. 다만 자녀에 대한 독서지도는 구속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이었다. 본 연구자는 이 유형을 “통제형”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소규모(15.4%)로 존재하는 유형이다. 또 이들은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장르에 대해서 독서지도를 수행하는 집단이라고 하겠다.

34) 이은미(2002).

<표 7> 제3유형: 통제형

번호	Q 표본	표준점수
9	자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책을 둔다.	1.57
10	자녀가 읽어야 할 도서목록을 만들어준 적 있다.	1.47
11	자녀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을 알려준다.	1.34
19	자녀와 같이 책을 읽는다.	1.02
2	자녀에게 독서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	-1.17
5	독서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	-1.48
3	자녀의 독서습관에 무관심하다.	-1.63
6	자녀의 독서습관을 모르는 편이다.	-1.69
1	자녀가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른다.	-1.75

4.2.4 유형간 차이

제1유형과 제2유형간의 차이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즉 제1유형은 ‘자녀와 자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독서 후 느낀 점을 자녀와 공유한다’, ‘자녀의 독서일정을 같이 짠다’ 등의 진술문을 동의했던 반면 제2유형은 ‘자녀가 책을 더 많이 읽도록 도와준다’, ‘자녀에게 좋은 책을 사준다’, ‘자녀의 독서습관을 존중한다’의 항목에 대해서 동의했다. 제1유형의 독서지도가 상호작용적 관계 구축에 초점을 둔 반면 제2유형은 독서환경 구축에 관심을 둔 집단이라고 하겠다.

<표 8> 제1유형과 제2유형간 차이점

번호	Q 표본	제1유형	제2유형	차이
23	자녀와 자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1.287	-.242	1.528
21	독서 후 느낀 점을 자녀와 공유한다.	1.632	.236	1.396
22	자녀와 독서일정을 같이 짠다.	.715	-.561	1.277
13	자녀가 책을 더 많이 읽도록 도와준다.	-.152	1.005	-1.156
8	자녀에게 좋은 책을 사준다.	-.120	1.516	-1.636
4	자녀의 독서습관을 존중한다.	-.153	1.808	-1.960

제1유형과 제3유형간의 차이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1유형과 제3유형이 가장 이질적 관계로 분류됐다. 제1유형은 ‘자녀와 자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책 내용을 자녀와 논의한 적이 있다’, ‘책의 어휘를 자녀에게 설명해준 적이 있다’, ‘자녀와 독서일정을 같이 짠다’ 등의 진술문을 동의했던 반면, 제3유형은 ‘자녀가 책을 더 많이 읽도록 도와준다’, ‘텔레비전을 없앤다’, ‘자녀가 읽어야 할 독서목록을 만들어준 적이 있다’의 항목에 대해서 동의했다. 제1유형이 적극적으로 ‘공유’와 ‘참여’, ‘토론’ 기반을 둔 상호작용적 독서지도를 수행하는 반면, 제3유형은 자녀의 독서습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로 구성된 독서지도를 수행한 유형이다.

<표 9> 제1유형과 제3유형간 차이점

번호	Q 표본	제1유형	제3유형	차이
23	자녀와 자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1.287	-.433	1.719
17	책 내용을 자녀와 논의한 적이 있다.	.808	-.628	1.436
18	책의 어휘를 자녀에게 설명해준 적이 있다.	.848	-.546	1.394
22	자녀와 독서일정을 같이 짠다.	.715	-.571	1.286
13	자녀가 책을 더 많이 읽도록 도와준다.	-.152	.920	-1.156
7	텔레비전을 없앤다.	-.748	.478	-1.226
10	자녀의 읽어야 할 독서목록을 만들어준 적이 있다.	-.362	1.467	-1.829

제2유형과 제3유형간의 차이가 <표 10>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제2유형과 제3유형간의 유사성이 가장 높았다. 제2유형은 ‘자녀와 자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책 내용을 자녀와 논의한 적이 있다’ 등의 진술문을 동의했던 반면, 제3유형은 ‘자녀가 읽어야 할 독서목록을 만들어준 적이 있다’의 항목에 대해서 동의했다. 제2유형이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적 특성을 보유한 반면, 제3유형은 더욱더 규제적 특성을 보였다.

<표 10> 제2유형과 제3유형간 차이점

번호	Q 표본	제2유형	제3유형	차이
17	자녀와 자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705	-.628	1.333
4	책 내용을 자녀와 논의한 적이 있다.	1.808	-.535	1.272
10	자녀의 읽어야 할 독서목록을 만들어준 적이 있다.	-.588	1.467	-2.055

4.2.5 유형간 공통점

3개 유형이 서로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은 항목들이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일치항목(consensus items)은 각 요인이 공통된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들은 ‘자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책을 둔다’, ‘자녀와 같이 책을 읽는다’, ‘자녀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을 알려준다’ 등에 동의했던 반면 ‘자녀에게 독서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 ‘독서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 ‘자녀의 독서습관을 모르는 편이다’, ‘자녀의 독서습관에 무관심하다’, ‘자녀가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른다’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모든 응답자들은 자녀의 독서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구사하는 독서지도 방식은 서로 달랐다.

요약하면 자녀의 독서지도와 관련하여 제1유형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제2유형은 독서환경 구축, 제3유형은 독서활동 규제 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제1유형과 제3유형이 가장 이질적이라고 한다면, 제2유형과 제3유형은 가장 동질적인 것이었다. 특히 제2유형과 제3유형은 자녀의 독서활동 관심에서 유사했지만, 독서지도는 제2유형이 제3유형보다 더 상호작용적 독서지도 방식에 가까웠다.

<표 11> 유형간 공통점

번호	Q 표본	표준점수
9	자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책을 둔다.	1.44
19	자녀와 같이 책을 읽는다.	1.17
11	자녀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을 알려준다.	1.15
2	자녀에게 독서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다.	-1.19
5	독서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다.	-1.33
6	자녀의 독서습관을 모르는 편이다.	-1.40
3	자녀의 독서습관에 무관심하다.	-1.57
1	자녀가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른다.	-1.9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용자의 주관성 탐색에 유용한 Q방법론을 활용하여 독서지도방식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독서지도는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제1유형(상호작용형): 자녀의 독서활동에 관심을 두면서, ‘공감’, ‘참여’, ‘토론’ 등의 독서지도 특성을 보유한 유형이다. 특히 이들은 자녀의 독서습관 및 태도를 관리하는데 관심을 쏟았다. 이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녀가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력, 창조력,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했다. 이들은 응답자의 30.8%에 해당했으며, 주된 독서지도 장르는 주로 소설이나 창작물 등이었다. 자녀의 독서과정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 이들은 텔레비전 시청지도의 ‘공동시청’과 유사한 형태라고 하겠다.³⁵⁾

둘째, 제2유형(소극적 지원형): 자녀 독서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었지만, 자녀의 독서지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편이다. 즉 이들의 독서지도는 ‘자녀에게 책을 사준다거나’, ‘자녀가 책을 쉽게 읽을 수 있거나’,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관련되었다. 즉 독서지도 목적은 자녀의 책읽기 습관 형성이다.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독서지도에 대한 인식을 보유한 이들은 응답자의 53.8%에 해당했다. 이들은 주로 역사물이나 위인전기물 등의 장르에 대한 독서지도에 관심을 두었다.

셋째, 제3유형(통제형): 자녀의 독서활동에 관심을 두면서, 규제적·통제적 독서지도를 구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이들의 독서지도는 자녀의 독서목록작성, 도서관 이용방법제공 등이었다. 이런 독서지도 방식은 ‘제한적·구속적인 시청지도’와 유사한 형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이 유형은 전체의 15.4%에 해당하였으며 이들의 독서지도는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장르에서 이루어졌다.

독서지도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은 자녀의 독서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지만 서로 다른 독서지도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의

35) 이은미(2002) ; 안정임(2003).

36) 이은미(2002) ; 안정임(2003).

독서지도는 상호작용적 관계 구축에 반면, 제2유형은 독서환경 구축에 관심을 두었다. 제1유형은 적극적으로 공유와 공감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 독서지도를 보유한 반면, 제3유형은 자녀의 독서활동의 통제 및 규제에 초점을 둔 지도방식을 보였다. 제2유형은 상대적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추구하였던 반면, 제3유형은 자녀에 대한 규제적 지도방식을 추구했다.

요약하면 자녀의 독서지도와 관련하여 제1집단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반면, 제2집단은 독서환경 구축, 제3집단은 독서활동 규제 등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부모의 독서지도 방법은 유형별로 상이하였다. 즉 일반적인 독서지도 방식(약 54%)은 자녀의 독서환경 구축이었다. 일부(31%)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한 독서지도 방식을 구사하였는가 하면 소수(15%)는 자녀의 독서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는 P표본을 어머니에 한정하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지도방식을 체계적으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 독서지도 관련 기존문헌검토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Q표본 구성이 정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부모 독서지도 방식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텔레비전 시청지도에서 나타난 '설명적 지도 방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흥미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³⁷⁾ 이는 후속연구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복희.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과정중심의 독서지도의 방법과 실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3.
- 김선남, 정현욱. “출판중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9집(2014). 229-258.

37) 이은미(2002) ; 안정임(2003).

- 김숙영. “독서토론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 김정혜. “부모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독서태도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5.
- 김현아. “아동문학 읽기의 새로운 현상과 접근.” 『독서연구』 제2호(1997). 135-180.
- 김홍규. “P 표본의 선정과 Q 소팅.” 『주관성연구』 15호(2007). 5-19.
- 김홍규.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김홍규, 오세정. “텔레비전 뉴스 수용자의 유형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주관성연구』 3호(2009). 5-36.
- 박경숙. “읽기 영역으로서의 독서교육방법연구 - 중학교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3.
- 백원근 외. 『2013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송미아. “소그룹과 가정에서의 독서지도를 통한 독서습관의 형성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6.
- 송현서. “어머니의 독서활동이 자녀 독서습관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8.
- 안정임. “한국에서의 TV시청중재 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7권 6호(2003). 332-353.
- 우한용. “문학의 위기와 인문정신의 미래.” 『독서연구』 제2호(1997). 7-36.
- 윤재욱. “통합적 독서지도방법연구 -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2014.
- 이경란. “학부모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아동의 독서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1.
- 이오현. “수용자의 뉴스해독에 관한 일 연구 - Q 방법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3.
- 이은미. “부모의 시청지도가 초중생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행위에 미치는 영향

-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6권 3호(2002). 397-421.
- 이은영. “권장도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학생의 학교도서관 이용 및 독서습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 이정춘, 이종국. 『독서와 출판문화론』. 서울: 범우사, 1995.
- 임남균. “부모의 제한적 시청지도가 자녀의 매체 시청조절능력 및 시청행태에 미치는 영향: 텔레비전과 인터넷매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0.
- 정대현, 신원애. “유아기 부모의 독서지도 인식 및 실태.”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11). 137-163.
- 채미숙. “자녀의 독서 촉진자로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 Fiske J.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강태완·김선남 역.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선북스, 2001.
- <<http://kids.hankooki.com/lpage/edu/201510/kd20151012161801118750.htm>>
(검색일자 2015. 10. 22).